

산악을 오르며 인생의 역경을 이긴다

최고봉에 등정한 산악인들의 등정기

목숨을 걸고 험준한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산악인구가 있지만 그에 비해 산악도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나마 몇몇 출판사들이 꾸준히 산악도서를 펴내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종합 출판사에서조차 다양한 기행형식의 산악도서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부분 외국서적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이 책들의 기저에는 인생 또는 인간성의 저변과 닿아 있는 등산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깔려 있다.

거기 산이 있기에

수문출판사 이수용 사장은 “최근 여러 출판사에서 산악서적이 출간되고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학성이 높은 산악서적도 많은데 서점의 등산 코너에만 진열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힌다.

등산은 무상의 행위다. 규칙도, 관중도, 그리고 심판도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고행에 가까운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고 급기야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산악인들을 까마득히 높고 황량한 산정에 올라가게 만든 것은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어떤 본질적인 욕구다.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인생살이와 다르지 않다.

산악에 관한 책은 수문출판사와 평화출판사가 꾸준히 펴내고 있다. 《산의 영혼》(프랭크 스마이트) 《티베트에서의 7년》(하인리히 하러) 《모험으로의 출발》(라인홀드 메스너) 《알프스의 3대 북벽》(안테를 헤크마이어) 《산의 사상》(김영도) 《71일간의 백두대간》(김춘일) 등이 수문출판사의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안나푸르나를 초등한 프랑스의 저명 산악인인 모리스 에르조크의 《최초의 8000미터 안나푸르나》가 번역 출간되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90년에 펴낸 《하얀 능선에 서면》(남남희)은 백두대간의 답사기라 할 수 있는데 한때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꾸준히 팔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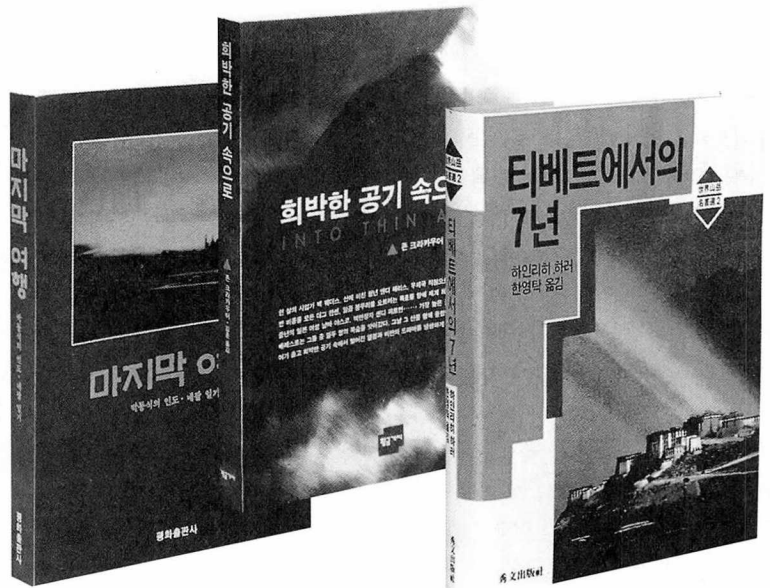
평화출판사는 50여종을 냈는데, 이 가운데 《나는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김장호) 《죽음을 부르는 산》(김병훈) 《어느 등산가의 회상》(에밀 자벨)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라인홀드 메스너) 등이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산악도서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정보와 간접체험, 인간인지에 대한 감동을 준다. IMF 한파가 몰아닥친 이즈음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준다.

이중 수문출판사의 《티베트에서의 7년》은 영화화되어 최근 국내에 개봉되고 있고 이 봄에 맞추어 황금가지에서도 2권으로 완역해 출간했다. 오스트리아의 등산가이자 작가인 하인리히 하러의 이 책은 금세기 기행문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세계 최초로 아이거북벽을 정복한 스물여섯살의 하러는 독일의 낭가 파르바트 원정에 참여했다 귀국하는 길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맞는다. 영국군에 체포돼 인도의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그는 몇 번의 탈출 시도 끝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립국인 티베트로 간다. 서구인의 눈으로 본 동양의 별천지를 편견없이 그린 이 책은 저자의 삶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현장감이 넘친다. 저자는 흑백사진처럼 중국이 점령하기 전 유일한 신정국가였던 티베트의 모습들을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 태초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하늘, 성(璽)과 속(俗) 어우러진 사원, 생과 사를 넘어 사는 무욕의 인간들, 봄의 흩날림과 겨울의 살인적인 추위를 정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티베트 사람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달라이라마와의 만남과 자연 앞에 자기의 존재를 되묻는 저자의 구도의 여정이 담겨 있다.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티베트와 네팔의 기행기는 근래 들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무전여행을 떠난 평범한 젊은이 강동식의 《마지막 여행》(평화출판사)도 인도 네팔 기행기다. 산악도서라기보다는 기행도서로, 저자가 경험한 네팔의 풍물과 사람들 이야



기가 담겼다.

지구의 지붕, 에베레스트

지구상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은 크나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산악인에게 도전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아웃사이드》라는 잡지의 집필담당 편집자이며 저술가인 존 트라카우어가 쓴 《희박한 공기 속으로》(황금가지)는 96년 봄 에베레스트 조난사고 당시 등반대로 참가했던 저자가 그 여정과 재난의 전말을 밝힌 책이다. 18명중 12명이 사망하게 된 이 등반은 한 조각의 적운이 정상을 덮으면서 악몽이 시작된다.

제4캠프까지 불과 4백미터를 남겨두고 눈폭풍이 하산하는 사람들을 덮쳤다. 몰아치는 강풍과 눈보라로 체감온도는 영하 70도까지 떨어졌고, 평지의 삼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산소량에 허덕이며 살아남으려고 애썼지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쇠살의 사업가 백 웨더스, 산에 미친 청년 앤디 해리스, 우체국 직원으로 야근하며 비용을 모은 더그 한센, 일급대륙의 최고봉 등정을 달성하기 위해 에베레스트에 오른 일본여성 남바 야스코, 백만장자 샌디 피트먼, 야망에 찬 젊은 셰르파 롱삼 장부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의 드라마가 살아 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놓치지 않고 담은 이 책은 혼란스러운 참사의 현장과 위협의 진상을 생생하게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정복의 욕구는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작품.

한국 최초의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쓴 원정보고서 《에베레스트-77 우리가 오른 이야기》(수문출판사)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등정후 20년만에 펴낸 책이다. 원정대 대원이자 집필을 맡았던 사람들 중 이미 많은 사람이 산에서 유명을 달리던 후에 출간되었다. 당시 원정대 대장 김영도씨가 엮은 이 책은 원정에 뜻을 두고 준비를 시작한 70년말부터 1977년 9월15일 에베레스트 등정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때까지 10개국 30개 원정대가 에베레스트에 도전했지만 정상을 밟은 것은 5개팀뿐이었고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는 재원 마련은 물론 대원모집과 훈련, 장비, 운송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3백80km의 산길을 21일 동안 걸러 베이스캠프에 닿고 베이스캠프에서 정상까지 36일에 거쳐 산을 오른 이들에게 이 긴 기간은 불안과 회의, 초조와 긴장, 좌절과 재기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사연이 이 책에 소상히 기록돼 있다.

이렇듯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산악도서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정보와 간접체험, 인간인지에 대한 감동을 준다. IMF 한파가 몰아닥친 이즈음에 인간의 한계, 자신과의 싸움이 진솔하게 담긴 이런 산악서적은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준다.

— 마정미 기자